



©YTN 방송 캡처



2019년 1월 16일 버니지아 주 맥린성경교회에서 열린 2019 '생명을 위한 복음전도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기독교인들. ©미국 윤리와 종교자유 위원회 제공

## 서구 기독교계 “뉴질랜드 총격 사건 피해자 위해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열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실 것”

영국과 미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현지시간 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며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치유와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성공회 존 센타무(John Sentamu) 요크 대주교는 총격 사건에 대해 “변명의 이유가 없는 고의적인 증오 행위이다”라면서 “무슬림 형제 자매들에게와 그들의 가족들,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열을 회복시키시고 희망과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웨일즈 인터내셔널 그룹의 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다. 부상자들과 유족 등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라.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라”고 기독교인들을 독려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가톨릭 교회 수장인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은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에 대한 총격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다. 테러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많은 희생자들, 부상자들 및 전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극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와 조화와 공존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지지하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미국 남침례회 회장인 J.D. 그리어 목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양심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슬림 이웃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스태디아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Stadia Church Planting)는 SNS를 통해 “우리는 뉴질랜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무슬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윤리와 종교 위원회 위원장 러셀 무어 목사는 SNS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살인에 대해 정의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해 함께 슬퍼하고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경 기자

## 미국복음연맹 “목회자들은 모든 직원 철저히 점검하라” ‘성적 순결과 아동 보호에 관한 요청’

최근 미국 전역에서 교회 내 성학대 관련 소식이 보도된 가운데, 전미복음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이 목회자들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3일 “NAE 이사회가 지난 7일 ‘성적 순결과 아동 보호에 관한 요청’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와 휴스턴 크로니클이 남침례회 교단 지도자들의 성적 비위 문제를 보도한 지 한달 만에 발표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 어린이집 봉사자들이 14명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도 알려진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목회자들이 교인들 특히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며 신탁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NAE는 결의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마 18:6)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셨다”

면서 “이처럼 위한 사실을 드러내는 내부 고발자들은 교회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AE 리스 앤더슨 회장은 “우리 교회와 사역 단체들은 이미 성적인 비위나 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 결의안은 희생자들을 이같은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NAE 이사회는 소속된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배경 및 참조 확인을 통해 고용된 모든 직원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아이들을 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교회 내 성학대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제3자를 세워야 한다. 또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적절한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단 우려스러운 사건이 보고가 되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방어적인 태도 없이 즉각적이고 철저히 이 보고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환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주관 : PCA 한인 서남노회 전권위원회

## 담임목사 위임 예배



담임목사  
**안 환**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PCA 인랜드교회 교우일동 -

일시 : 2019년 3월 31일(주일) 오후 4:30  
 장소 : 인랜드교회 본당





김동일 목사가 <예수로 성경읽기>를 출판하고 16일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기쁜우리교회가 JCCC 올림픽 전교인체육대회를 10일 주일 3부 예배 후 개최했다.

###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자 했습니다”

#### 김동일 목사 <예수로 성경읽기> 북콘서트 개최

김동일 목사가 자신의 첫 저서인 <예수로 성경읽기>를 출판하고 미주를 방문해 16일 오후 2시에 올림픽장로교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 목사는 수년 전까지 LA에서 생명찬교회 담임 목회를 해왔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생명찬교회를 개척했다.

김 목사는 이 자리에서 “이 책은 신학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로, 초대교회 이래로 사도적 전통 하에서 성경을 연구해 온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오늘날 우리의 바른 성경 읽기와 건강한 신앙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 책의 초점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봄으로써,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으며, 신구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자 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면서 “성경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올바른 성경 읽기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의 웅장한 계획을 깨닫는 것이다”고 했다.

또 “구약과 신약을 부분적이 아닌 통전적으로 읽어 냄으로써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자 했다.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는 ‘전체적 그림,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통전적 성경 읽기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이 책에서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곧 메타내러티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 기쁜우리교회 체육대회 개최 “화합의 장”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JCCC 올림픽 전교인체육대회를 10일 주일 3부 예배 후 개최했다.

김경진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JCCC올림픽에는 여자 발야구, 교육부게임, 줄다리기, 실버게임, 원반화살던지기, 립보, 사랑부게임 풍선터뜨리기가 있었다. 경기 중간중간에 목양별로 준비한 응원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고 교회는 밝혔다.

교회 측에 따르면 탁구결승전 단식,복식의 흥미진진한 매치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함께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찬송가 220장 가사처럼 단합된 모습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교우들 가슴에 각인됐다.

우승은 소망(2목양) 응원상은 기쁨(6.7.8목양)팀에 돌아갔다. 경품의 행운은 백혜숙 권사(새가족부)에게 안겨졌다. 교회 관계자는 “이날 체육대회는 교회창립 2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화합과 단결의 사랑으로, 일취월장 성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며 “분명 신앙의 깊이와 교회생활의 즐거움이 확산되는 한바탕 축제였다”고 밝혔다.

### ‘칠순잔치보다 아이들 돕는게 더 행복해요’

#### 굿네이버스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후원자 김금옥씨와 굿네이버스 직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미국법인(회장 이일하)는 지난 3월 14일, 엘에이 지역에 거주하는 김금옥 씨가 굿네이버스에 \$1000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금옥씨는 ‘네팔에 사는 소녀 부자가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감을 구해 버는 돈은 고작 50센트. 두 동생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싹틈없는 어린 두손은 거친나무에 찢리고

굵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곧 있을 내 칠순 잔치를 위해 쓰이는 돈이 하루에 50센트도 겨우 버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생일 잔치 하는 것 보다 아이들을 돕는 것이 더 좋다는 김금옥씨가 전하는 마음은 천불의 액수보다 훨씬 크다.

굿네이버스는 “이 소중한 후원금 \$1,000불을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김 씨와 같이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생일이나 자녀의 돌잔치를 맞아 굿네이버스로 후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민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경 목회 세미나>

#### 강사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전태식 목사의 성경 목회 세미나 LA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첫번째 일정은 3월 28일 (목)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 (토) 오후 6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리조트 (681 South Western Ave. LA, CA 90005)에서 열리며 두번째 일정은 4월 1일 (월) 오전 10시부터 4월 3일 (수) 오후 6시까지 찬양교회(김성대 목사, Praise Church of the Nazarene, 3401 West 3rd St. LA, CA 90020)에서 열린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강사로 나서는 전태식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는 복음의 불모

지였던 경남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해 출석성도 1천여명의 교회로 부흥시킨 바 있으며, 기존의 관주 성경이나 주석성광과 달리 관주와 해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바드 성경 관주해설>을 편찬하기도 했다. 현재는 CHTV 크리스천헤럴드 서울방송위원, CTS기독교TV 이사, 한국교회연합 교류협력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OC목사회, 남가주목사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원로 목사회, OC원로 목사회, OC여성 목사회가 후원했다.

문의: 010-7600-3397(박성하 목사), 카톡ID: cheo0920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기독교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THE LOCK MINISTRY**  
 Love. Learn. Live.  
 P.O. Box 9693, Brea, CA 92822  
**Love Of Christ's Kingdom**  
**Learn On Christ's Kingdom**  
**Live Out Christ's Kingdom**

The LOCK Ministry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공급하며 복음을 전하여 신앙으로 세워주며, 갇힌 자들이 놓인 후에는 훈련하고 인도하여 그들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 및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 한 기영 목사  
 T:(248)842-6342



지난해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에 참석한 시인들과 작곡가들



강우중 교수와 리즈 라인하르트 (Liz Reinhardt, 펀드 개발 및 마케팅 담당 디렉터)

### ‘제 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을 위한 시 공모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4월 15일 마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시 149:1)라는 시편 말씀처럼,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선율로 성가곡을 만들어 <창작 성가의밤>을 성황리에 개최해 왔다. 올해도 <제 19회 창작 성가의 밤>을 위해 시 공모전을 갖는다. 시 내용은 기독교 성가곡 가사로 쓰기에 적절해야 하며 당선된 시는

작곡가에 의해 성가곡으로 작곡된다. 또한 올해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제 19회 창작 성가의 밤> 때 선별된 합창단에 의해 성가곡이 (초연) 발표된다. 당선된 시인들은 <창작 성가의 밤>에 초청되어 본인의 시의 성가곡 연주를 듣게 되며 관객에게 시인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선정된 시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가곡집도 받게 되며 본

인의 작시한 곡이 유튜브에 업로드된다. 시 공모전의 마감일은 4월 15일 월요일까지이며 작곡 분과장 (황현정 선생님 music1999@gmail.com)에게 보내면 된다. <제 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 - 시 공모>라고 명시해야 한다. 문의: (310)923-1064, (714)351-0782 협회 관련 문의: (310)381-9835 (회장 전현미)

### 미주장신 사회윤리 연구모임 ‘공감 in 공감’ 캔푸드 캠페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하 미주장신대) 재학생들은 이웃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캔푸드 드라이브’ (canned food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미주장신대 학생처(처장: 김루빈 교수)와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모임 (담당: 강우중 교수)인 ‘공감 in 공감’ 주제로 미주장신대학교 재학생들이 힘을 합쳐 캔푸드 300여 개를 사우스베이 발런티어 센터 (Southbay Volunteer Center)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미주장신대 교내 모임인 ‘공감 in 공간’은 노숙자, 환경파괴, 소득불

평등, 청소년 성교육, 동성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복음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형성됐다. 미주장신대는 전문적 학술 연구모임과 다양한 교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신학과 목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학술 세미나와 참여-개선 운동을 통해 학문적 이론과 구체적 실천을 균형있게 제공하는 학문과 경건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장학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담임목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목표로 2018년 장학위원회를 구성해 제 1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앙이 돈독한 크리스천 학생들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꿈과 비전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

학생을 모집한다. 장학생 대상은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 2)일반 대학(원)생 3)신학생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발표는 7월 14일, 장학금 수여식은 8월 1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www.joyfulccc.org)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 (scholarship@joyfulccc.org)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쁜우리교회는 나눔과 베품의 사역으로 짧은 역사속에서도 교계안팎에서 훈훈한 온정으로 회자되고 있다.

### 민족학교 정봉 장학생 모집

민족학교(사무국장 백기석)는 초대 이사장 고 정봉 최진환 박사를 기념하는 2019년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은 뿌리·홍익·드림 장학금 카테고리 각각 \$1,500가 수여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계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민족학교의 장학금 프로그램은 1995년에 시작한 정만수·이주영 “강동 장학금”, 2007년의 드림장학

금, 2013년의 정봉 장학금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인 또는 아시아 태평양계, 재정적 필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생이어야 하며, 대학 입학, 재정 등의 정보와 에세이 제출이 필요하다. 민족학교는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에게 <3·1독립선언서>, 김구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장준

하의 <돌베개>, 한강의 <소년이 온다>, Helen Zia의 <Asian American Dreams> 등의 독서를 추천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4월 21일이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 (민족학교 김정우 전국조직부장, jungwoo+scholarship@krcla.org)로 받고 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krcla.org/ko/scholarship 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며,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신청 안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소망 치매 돌봄 교육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매돌봄 교육 시리즈 3차 교육이 오는 3월 23일 (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에는 ‘치매 환

자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주제로 최경철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 강의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어떻게 치매환자와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지를 배우게 된다. 교육 장소는 5836 Corporate Ave. Ste 110, Cypress, CA 90630에 위치해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를 원하면 3월 21(목)까지 소망 사무실(562-977-4580)이나 이메일 (somang@somangociety.org)로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필리핀 오지에 세운 유관순 열사 기념교회가 4월 27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유관순 열사 기념교회 완공 앞뒤

3.1 운동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 기념교회(Christ Centered Ministries Intel. 담임 Jorem 목사)가 필리핀 오지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교회는 로스앤젤레스 교회협의회 회장이자 대신총회 남가주 노회 노회장인 류당열 목사 주관으로 건축이 시작되어 4월 27일 완공 예정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카는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움직이 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한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19-2020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www.joyfulccc.org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2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대상** -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 (PK & MK Scholarship)  
- 일반 대학(원)생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신학생 (Seminary Scholarship)
- **선발 인원** - 00명
-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년 3월 17일 ~ 4월 28일  
- 선발 결과 발표 : 2019년 7월 14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 2019년 8월 11일 예정
-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를 scholarship@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4〉

### 홀리스 섬기는 울타리선교회 이야기

엘에이 다운타운 지역에서 홀리스 이웃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선교회가 울타리선교회이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한결 같이 홀리스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헌신하는 이가 나누옥 목사이다. 최근 4년간 울타리 선교회는 홀리스들의 웰터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울타리 선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를 다운타운에 있는 월트 디즈니 홀에서 열고 있다. 홀리스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라 큰 기대 없이 그저 후원하기 위해 온 청중들에게 참여한 음악가들의 연주와 공연은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다.



이상훈 목사  
주비선교회 담임

받긴 했지만 어색하기 그지없다며 고마움을 표할 때의 나목사의 얼굴은 마치 어린 소녀 같았다. 참 겸손하게 낮게 사신 삶의 흔적이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살았다 한다. 사회활동을 할 시기부터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하여 세상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다 한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70이던 은퇴를 하여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그에겐 그 생일날 또 다른 포부가 있음을 선언했다. 나목사는 이 사역을 하면서 클레어몬트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했다. 그리고 논문이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논문의 주제는 “엘에이 홀리스의 실태와 해결안 모색”이다.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면서 엘에이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홀리스 이웃의 자녀들이 20-30% 분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홀리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부모들의 가난과 실패의 대물림을 끊고 성공하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삶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다시 새 일을 더 계획하시는 나목사의 비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웬지 큰 미소를 지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필자는 물론 그 자리의 모든 이 사들 그리고 후원자까지 우리 목사님 못말린다면 엄살을 부리면 서로 모두가 앞으로 그 일에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의 큰 박수를 보냈다.



권태영 권지선 부부

### [간증] 지선아, 완전한 믿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2019년 1월 2일 새벽기도 가운데 ‘미국에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옷과 신발만 들고 가라는 음성 가운데에도 혹시 모를 세미나 기간 동안의 호텔 예약과 그 이후 잘 곳이 없으면 차에서라도 자야한다는 생각에 차를 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미국에 머무르게된 13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의도해서 쓴 돈 이외에 단 1달러도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 말에 순종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만큼 준단다’라고 말씀하시듯 정말 감동할 수 없을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는 7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음통일 세미나> 스케줄 속에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용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면 저희는 구름 위를 걷듯, 많은 사람들이 성령받을 때 경험하던 일들을 저희는 그 순간 경험한 듯 씁니다. 우리 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LA행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기리 접촉사고로 인해 날개가 부러지며 6시간 가량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라이드 받기로 한 박상원 목사님과 약속도 취소한 채, 기다림 끝에 타게 된 비행기 안에서 남편 옆자리에 키가

큰 미국사람이 앉았습니다. 자연스레 남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우리의 도착지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빛선교회 2분 거리에 사는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라 우리도 편하게 독일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어서 빠르게 통과하는 게이트로 나간 반면 외국인인 우리의 입국절차는 우리가 내리던 비행기와 동시에 중국비행기의 중국인들과 합쳐지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명함만 주고 갔던 그 교수는 당연히 갔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데려다 왔던 그의 아내와 함께 우리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공지연으로 인해 저녁집회 막바지부터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날 임현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난생 처음 미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권사님께서 저희에게 오셨고 ‘어디서 묵으세요? 저희 집에 모시고 싶은데...’ 우리의 나 된 생각의 잘못을 뉘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연락했던 저희의 믿음을 용서 하소서...’ 그 이후로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 동안 여러 주님의 용사들과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먹고 자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한 목사님을 만나 전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야 할 때 아버지와 약속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만남적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 분을 만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만날 수 있을지도 저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만약 내가 진짜로, 정말로 얘기해야 된다면 제가 꼭 그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해주세요.’ 우리는 그 목사님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 중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어느 목사님 한 분께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으면, 전해야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저는 빼도박도 못한 채, 완벽한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독일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믿음의 훈련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짝 하나님 음성을 듣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며 저희의 작은 믿음부터 다듬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선아, 완전한 믿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나 주님께 가기 전까지 내 영혼 깊이깊이 새겨져 버린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어느 곳으로 보내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나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늘 붙들어주소서.’

###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는 3월 24일(일) 오후 1시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를 열고 공립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합법적 권리와 디스트리블 탈퇴(Opt-Out)선택권 등에 관해 전한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장소는 교회 내 킹덤드림센터 히습 극장 (KDC Hyssop Theater)이며, 차일드 케어 및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또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총 4회

에 걸쳐 ‘십대자녀의 이해’를 주제로 <자녀양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변명해 전도사, 박재민 목사, 스펜서 김 목사가 강사로 선다.

문의: (949)285-4864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8:31-36

구속(拘束)의 반대는 자유(自由)이고 압제(壓制)의 반대는 해방(解放)입니다

## 1. 자유케 하는 진리

### A.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意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양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선민사상에다 율법준수자로 자처하며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갈파(喝破)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참 자유에 대한 그릇됨을 일깨워 주시려는 교훈이였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 400여 년, 바벨론에 70여 년 지금도 로마제국의 식민으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말로 속박이나 자유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B. 인류가 왜 구속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나?

아담과 이브가 허락 받은 생명과일만 따 먹고 살았으면 에덴 낙원에서 영생할 수 있었겠는데 창세기 3:1-6에 가장 간교한 뱀(사탄)의 꾀임으로 이성을 잃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먹게 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신종(信從)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예측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경계의 표준을 삼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의문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방치(放置)하십시오 이브가 따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들이 기계적으로(존경심도, 정성도, 의지도 없이) 섬긴다는 것인데, 그 섬김에 대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 지를 주심으로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기도로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입구에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한 인형이 나란히 서있는데 손님이 들어올 때 자동 장치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계적 작동에 실증이 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로 하수인이 되어 하나

님의 교회를 휘방,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 발악하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107:10-12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옳되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하신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깊은 절망상태로 죽을 지경으로 몰린다는 뜻이었고 곤고는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이며, 쇠사슬에 매임은 중죄인으로 쇠사슬로 된 포승 줄에 얽매어 형무소와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영적 속박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에베소서 4:18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셨습니다.

## 2.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시편 107:10-20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값으로 영육간(靈肉間)에 죽어 가던 죄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영육간에 죄악에 얽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곧 예수 그리스도)을 보내어 은혜로 죄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 B.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계속 종 노릇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귀에 의한 울무와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진리와 은혜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公義)의 실천(實踐)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받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가시와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쏟아 죽임 당해 주신 구원 교리를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마 1:21)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롬 8:16)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한 온갖 불행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되는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유럽의 어느 백작내외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거부로 살았는데 어느 가난한 친족집의 아들 하나를 양자로 들이기 위하여 농토를 꽤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그 백작은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겸비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회

의나 파티에 초대되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의 별실의 벽에 걸려있는 활과 화살을 보고 갑자기 활을 쏘아보고픈 충동심이 발동하여 화살과 활을 가지고 집 뒤 정원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거위 한 쌍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은 서둘러 화살을 시위에 걸고 힘껏 당겨서 가까운 편에 서있던 거위를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화살은 거위 몸에 명중했고 짹짹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은 후회하면서도 아무도 몰래 묻고 귀가하기 위하여 언장을 들고 돌아서는데 그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고 용된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큰일났네. 어떻게 한단지? 지난 초봄에 백작께서 거위 한 쌍을 사오시면서 집안이 적적하니 이제부터 이놈들이 내 즐거움이 되어 줄 것이라며 매일 아침 먹이를 주시며 무척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앞이 캄캄해지고 객기를 부린 자신의 경거망동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때 부엌 아주머니 말씀이 "내가 이 사건을 눈감아 주겠다면 내게 어떻게 해주겠느냐?"고 흥정을 해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아주머니께 어떻게 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아주머니 왈, 어른들이 외출하시고 안 계실 때 마다 집안과 부엌까지 청소하는 것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겠는지를 생각해봤지만 만일 이 일이 탄로되어 양부모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쫓아버리시면 다시 거지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엌 아주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하고 그 아들은 매일같이 종노동에 시달리며 몸살까지 앓게 되어 전신에 기운도 없고 급속도로 바싹 말라가니 새 어머니께서 불러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며 원인을 밝히라고 하실 때 아들이 비로소 "화살로 거위를 죽여 매장했는데 그 장면을 부엌 아주머니가 다 지켜보고 비밀로 해줄 터이니 자기를 도와 종이 되라고 해서 부모님이 집을 나가시기 바쁘게 불러서 이일 저 일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다독이며 "이 어리석은 아들이! 이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까짓 죽은 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가슴을 조이며 부엌 아주머니께 종노릇까지 하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니, 염려 말라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 드려 거위 한 마리를 더 사다 놓을 것이며 부엌 아주머니도 오늘 당장 내보낼 것이다"라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의 신뢰와 사랑에 뜨거운 감동이 새겨지면서 다시는 실수로 범죄하지 않고 효도할 것을 다짐 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더욱 악랄하여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범죄 즉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직고(直告)하기도 하고 이미 범죄 한 것을 옹무로 계속 악용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1서 1: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했으며, 히브리서 4:16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위하여 서둘러서 회개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권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이민 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 전태식 목사의 성경목회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LA 제2회**

2019.3.28(목) 오전10시 ~ 3.30(토) 오후6시까지

**가든스위트호텔.리조트** Garden Suite Hotel & Resort  
(681 South Western Avenue LA, CA 90005)

**LA 제3회**

2019.4.1(월) 오전10시 ~ 4.3(수) 오후6시까지

**찬양교회** Praise Church of the Nazarene  
(3401 West 3rd street LA, CA 90020)

| 문의 | **(박성하 목사) 010-7600-3397 / 카카오톡D cheo0920**

※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는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찬양교회 | 담임 김성대 목사**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종교학과 졸업
- 찬양교회 담임
- 미주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 총연합회장

**강사 | 전태식 목사**

- 아바드성경 관주해설 저자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 CHTV크리스천헤럴드 서울방송위원
- CTS기독교TV 이사
- 순복음부흥사회 28, 29대 대표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역임
- 한국교회연합 법인이사 역임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교류협력위원장
- 사단법인 아바드재단 대표이사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담임



제1성전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제2성전 | 청원진주초대교회



제3성전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 | 후원 | OC목사회, OC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 원로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외 각지역 교회협의회, 미주크리스천 여성방송인연합, 찬양교회, 미주예수사랑교회 외 (일부 확인중)
- | 미디어후원 |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헤럴드, CHTV 56.9 외



헤드럴웨이 교회연합회 정기모임

### 헤드럴웨이 한인 교회연합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 다짐

헤드럴웨이 교회연합회(회장 김순호 목사)는 지난 11일, 헤드럴웨이 양문교회(담임 김광훈 목사)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헤드럴웨이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를 다짐했다.

이날 설교한 김광훈 목사는 “헤드럴웨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어 “목회자는 목회 중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를 살피시고 계심을 잊지 말라”며 “모든 목회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헤드럴웨이 지역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수고

와 노력으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글로벌 모바일 선교 대표 원 일 목사가 “목회사역에 필요한 모바일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로 목회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바일 기술을 소개했다. 원 목사는 모바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교회 소개와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며 그는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하는 실용적인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을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정기모임에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있을 워싱턴주 선교대회 소개와 대회 참여를 위해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폴 원 기자

### 세이연, 미국 달라스서 제8차 정기총회 은혜 중에 마무리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제 8차 정기총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 회장 김순관 목사, 이하 세이연) 제8차 정기총회가 “진실한 증인(Truthful witness 잠14:25)”이란 주제로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 소재한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세이연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전체 9개국(미국·한국·호주·영국·콜롬비아·멕시코·독일·중국·이스라엘) 54명의 회원 중 위임포함 8개국(미국·한국·호주·멕시코·중국·콜롬비아·영국·독일)에서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이연 상임위원인 조남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김광석 목사(이단대책위원)의 기도와 김성일 목사(목회자자문위원)의 성경봉독, 김순관 목사의 설교,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의 광고에 이어 박형택 목사의 축도로 시작되었다.

세이연 대표회장인 김순관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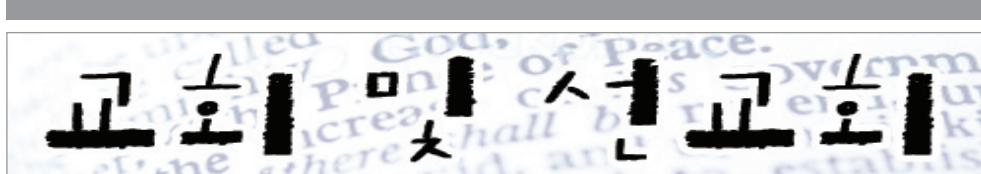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더할 수 없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단체가 이단을 해제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이단연구자들이 이단과 문제단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이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또 “미주 세이연이 불법단체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또 어느 수상한 단체가 미주 세이연은 이단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주 세이연이라는 단체는 없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라는 단체로 미국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단체이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이다. 또 우리 삼위일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되

는 조작을 하는 자들도 있다.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다.”

“세이연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코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지극히 합법적이고 당당한 단체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이연의 당당한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회원들과 우리 단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준비위원장인 이태경 장로는 “최선을 다해 총회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러나 참여한 회원 모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멋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소감을 피력한 후 참여한 회원들을 소개했다.

특히 준비위원장인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는 교단의 총회장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총회 행정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순서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기획해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회원들로 부터 받았다. 전 대 뉴욕지역 교협 회장이었던 부회장 이종명 목사와 크리스찬 투데이 서인실 국장 역시 바쁜 일정에도 총회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이연은 회무처리 후 오후엔 남침례신학대학교 방문과 달라스 전통 마차 관광, 저녁에 이인규 장로의 <은혜로교회 신학주의 이단성>을 시작으로, 주금돈 목사의 <성경을 바로 알면 이단이 보인다>, 정명철 목사의 <몬타누스주의를 통해 본 혁명적 천년왕국 운동들>, 박형택 목사의 <성막에 대한 연구> 등 세미나가 있었고, 13일 저녁에 폐회예배와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p>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b>김성식</b> 담임목사</p> <p><b>LA백송교회</b> 백합회침례 순경교회 &amp; 스나무침례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9:00</p> <p><b>씨니킴</b> 담임목사</p> <p><b>LA씨티교회</b></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7:30(월-금) 주일에 - 버클랜드(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음원리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p> <p><b>김기섭</b>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위한 이단2세특별강의, 이단기정음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p> <p><b>장태원</b> 담임목사</p> <p><b>LA세계선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 (67)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에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b>최순환</b> 담임목사</p> <p><b>New Church</b>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한천영</b> 담임목사</p> <p><b>갈릴리선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6부예배 오후 10:30</p> <p><b>강진웅</b> 담임목사</p> <p><b>갈보리민음교회</b>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b>엘리아 김</b> 담임목사</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을 향해</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b>진유철</b> 담임목사</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7:00</p> <p><b>박현성</b> 담임목사</p> <p><b>나성열린문교회</b>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p> <p><b>김문수</b> 담임목사</p> <p><b>나성제일교회</b>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지용덕</b> 담임목사</p> <p><b>미주양곡교회</b>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화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267-0030 www.churchla.org</p>
<p>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b>김경철</b> 담임목사</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영혼사랑을 실현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대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5부예배 오후 11:00 6부예배 오후 6:00 (화-토)</p> <p><b>정병노</b> 담임목사</p> <p><b>새일교회</b>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인근 일대(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p> <p><b>정세훈</b> 담임목사</p> <p><b>새한교회</b>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3부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b>정인호</b> 담임목사</p> <p><b>예수마을교회</b>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11:15 3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7:30</p> <p><b>곽진섭</b> 담임목사</p> <p><b>예은장로교회</b>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후 8시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b>박은종</b> 담임목사</p> <p><b>예일한인교회</b>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5:20 (월-금)</p> <p><b>김중호</b> 담임목사</p> <p><b>예향선교회</b>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3부예배 (분당) 오전 11:00 4부예배 (분당) 오전 8:30 5부예배 (분당) 오전 11:00 6부예배 (분당) 오전 5:30 (월-토)</p> <p><b>정장수</b> 담임목사</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열, 믿음, 사랑,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6:30</p> <p><b>신승훈</b> 담임목사</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30</p> <p><b>김신</b> 담임목사</p> <p><b>주향교회</b>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1:00</p> <p><b>이명수</b> 담임목사</p> <p><b>청운교회</b> 선교에 초점을 둔 교회, 복음의 열매, 비전교회관의 열매</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p> <p><b>김은목</b> 담임목사</p> <p><b>평화교회</b> 선교와 전심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성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주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중국어성경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ed Service)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희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국가인권위, 현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 제출... 논란 예상

“소수자 인권 보호’ 평소 입장에 위배” 지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현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 의견서에서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애 위원장도 18일 보도된 국내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아 현재에 표명했다”며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어야 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소수자’인데, ‘여성의 기본권’을 앞세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

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며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도 얼마 전 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이미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나의 권리는 소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태아의 생명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국가기관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현재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현재가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인권위는 특정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한편, 최영애 위원장은 위 일간지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드러냈다.

이대웅 기자

“종교의 자유 · 정교분리 침해”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목회자 125명이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과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위헌여부를 구한 조항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2조 5호 아목, 제170조다.

이런 조항들이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정교분리(헌법 제20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그에 귀의한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종교행사 등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들은 “과세당국의 집행권 남용의 여지를 두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무조사로 종교활동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록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제 교회가 종교(목회)활동비를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구분해 교회 명의로 기록·관리할 경우, 그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

금하는 등 직접 지급하면,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또 “세무조사의 대상에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라며 “세무조사의 발동조건과 대상, 그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즉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발동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무조사(질문조사)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70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발동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청인들은 스스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심,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 125명”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 전 국회의원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

김진영 기자





©Facebook/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 美 샌프란시스코 신대원(SFTS) 한 사립대학에 합병

미국 서부에 위치한 미국 장로교(PCUSA) 교단의 유일한 신학대학원이 곧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무종파 사립대학에 흡수될 예정이라고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871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FTS)과 아이오와 서부에 위치한 유일한 미국 장로교(PCUSA) 소속 신학교가 최근 레드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Redlands)에 신학대학원으로 합병된다.

신학대학원 총장인 짐 맥도널드 목사는 최근 공개 서한에서 “신학대학원과 레드랜드 대학이 지난 2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수개월 안에 합병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 목사는 “이 새로운 관계가 모든 학생들의 삶을 위한 기회를 창조할 것에 매우 설렌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추구하면서 변화와 평화, 치유, 정의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CP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널드 목사는 합병에 대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SFTS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다”면서 “더 큰 대학에 소속되는 것은 신학교

가 변장할 수 있는 입증된 모델이며 SFTS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션과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SFTS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장로교(PCUSA) 신학대학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PCUSA) 측에 따르면 신학대학원의 레드랜드 코스가 소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샌 안셀모(San Anselmo)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Presbyterian News Service’에 따르면, 현재 신대원에는 약 16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으며 석사 프로그램이나 박사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대원의 교직원 인력들이 삭감될 예정이며 맥도널드 목사 역시 올 여름에 신대원장직에서 퇴임할 예정이다. 맥도널드 목사는 인력 삭감에 대해 “SFTS의 핵심 교수진은 모두 레드랜드 대학 내에서도 재임 기간을 유지할 것”이라며 “새로 합병된 조직의 인력 수요에 대한 신중한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레드랜드 대학 Ralph W. Kuncel 학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신학교 인수가 7월 이전에 공식화되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팀 켈러 “기독교인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경계해야”



팀 켈러 목사(뉴욕 리더마장로교회 설립, CTC 이사장)

팀 켈러 목사가 미국 내 만연하고 있는 극우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등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선호하는 정당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간 ‘방탕한 선지자’(The Prodigal Prophet: Jonah and the Mystery)를 펴낸 팀 켈러 목사는 더가스펠코얼리션과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양극단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요나를 주제로 설교를 해 온 켈러 목사는 “요나서는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정치, 정체성, 그리고 인종적·종교적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보다 자신의 국가인 이스라엘 만의 이익을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안전한 줄로 여겼다.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보다 국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날 그분의 교회는 수 많은 종족, 사람들, 국가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한 나라 만을 높일 수 없다”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외국인 혐오증의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어느 쪽이든

너무 급진적이 될까봐 두렵다. 많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공화당에 투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많은 공화당 기독교인들이 민주당을 향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를 단순히 보수와 진보로 특정 지워선 안된다. 어떤 면에서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많고, 정의를 중시하는 유색인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자유분방하지만, 동시에 성별에 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교회를 향해 ‘왜 이민자들을 더 배려하지 않는가?’, ‘왜 가난한 자를 더 배려하지 않는가?’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켈러 목사는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요나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이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해진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신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학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 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이침례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교포)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음주의를 믿는 자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갈라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엘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1부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개종한 무슬림 사역하던 케냐 출신 목사 폭행 당해 입원

##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



악명의 '알샤바브' 다시 주목  
알 샤바브가 배후로 지목된 테러 사건 보도 장면.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케냐의 한 목회자가 성난 무슬림들에 의해 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기독교 박해 보도 매체인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해 이 목회자가 케냐와 소말리아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가리사(Garissa) 지역에서 열린 기도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받고 대퇴골을 크게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압둘'(Abdul)이라는 이름의 이 목회자는 나무로 된 몽둥이를 가진 남자들에게 폭행당했으며 사망 직전의 상태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소말리아 무슬림 여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압둘 목사는 7여년 전 회심했으며 올해 나이 30세로 8세 5세 3세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그는 30여 명의 개종한 무슬림들로 구성된 지하 교회의 리더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비밀리에 유지하려 했지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노출됐다고 한다. 압둘 목사는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는 당신의 움직임과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악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압둘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명의 가해자가 몽둥이로 그를 구타했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일어나자마자 이웃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고 피가 고인 웅덩이에서 자신을 발견한 이웃들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말했다. 압둘 목

사는 가리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허벅지와 허리, 왼쪽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고통을 참기가 어렵다. 우리 가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 왔다"면서 "기도제목은 지금 당장 가족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얻는 것"이라고 전했다. 케냐는 오픈도어스(Open Doors USA)의 2019년 월드 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40위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는 3위를 차지했다.

소말리아의 약 99%는 무슬림이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 샤바브'(Al-Shabaab)의 본거지다. 알-샤바브는 케냐 동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했다. 지난 2015년 이 단체로 인해 가리사 대학(Garissa University)에서 1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중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케냐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28명의 기독교인이 이 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2017년에는 케냐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7명의 기독교인을 살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스는 "알-샤바브는 무슬림 배경을 가졌던 기독교인을 공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이슬람을 떠난 신자들이 발견되면 종종 그 자리에서 살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플라니족에 의해 120명 사망



기도하는 나이지리아 성도. ©한국오픈도어

지난 2월 이후 나이지리아 중부 카두나(Kaduna) 주에서 플라니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적어도 120명이 사망했으며, 140 명이 넘는 가구가 파괴됐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카두나 주지사 나시르 엘 루파이(Nasir El-Rufai)는 플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폭력으로 수천명이 집을 떠나게 되어 이번 주 카주르 지방 정부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통행 금지령은 남부 카두나(Kaduna)의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다라(Adara) 족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플라니 족의 공격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카주르 지역의 인키리미(Inkirim) 마을에서 최근 5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며 143가구가 파괴됐다. 이전에도 한 차례 공격이 발생해 17명이 사

망하고 수십채의 가구가 화재로 전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2월 말, 카주르 지역의 마로(Maro)에서 또 다른 공격이 가해져 약 38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0일 웅완 바드(Ungwan Barde)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했다. 그 전날에도 6명이 사망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이번 공격의 희생자에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면서 "생존자들에게 따르면 플라니족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공격했는데 첫번째 그룹은 총격과 사살을, 두번째 그룹은 건물에 화재를 일으키고 세번째 그룹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세계기독교연대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카두나 남부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아다라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기타 연주하시는 분
드럼 연주하시는 분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기타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영정 사진
가족 사진
입관·하관 예배
부동산 홍보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THC Free
각각 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헴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천연식물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지극히
정확하게 추출하여 암 뇌종양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임상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씨앗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용이성을 위해서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씨 함초환은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헴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ain)성분이 혈관 청소로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250+tax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원주대학교 석좌교수

# “성경 말씀은 힘이 있어, 잠든 젊은이들을 일깨웠다”

## 우남식 목사 ‘대학과 세계 선교를 향한 권서행전’ 펴내

그 시대 한국 사회 역사와 선교 역사가 오롯이 담긴 교회 35년사가 편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2-2017 대학선교와 세계선교를 향한 권서행전'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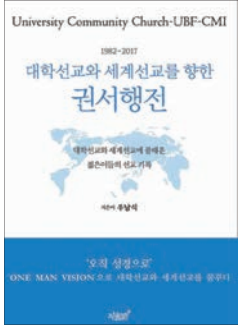
이 책은 '대학선교와 세계선교에 불태운 젊은이들의 선교 기록'이라는 부제 아래, 인천 대학마을 교회와 우남식 목사 부부의 흔적이 900쪽 넘는 분량에 담겨 있다. 우남식 목사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후 같은 처지의 대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캠퍼스선교에 뛰어들었고, 성경공부를 통해 길러낸 제자들을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이 책은 한 교회의 사례를 통해 지난 35년간 한국교회 캠퍼스와 세계 선교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료이다. 대학마을교회는 우목사의 비전과 함께 움직였다. "하나님은 20대에 성경 말씀으로 찾아 오셔서 구원하시고 대학생 복음역사에 부르셨습니다. 30대에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였고, 40대에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동유럽 첫 선교사 파송과 수교도 안 된 러시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50대에 교수로 티칭(teaching), 60대에 집필로 라이팅(writing)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비전대로 교회가 설립된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교와 제자 양성을, 올림픽을 기점으로 1989년부터는 동유럽 첫 선교사 파송과 센터 건축을,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부터는 이웃을 섬기는 지역교회 설립과 지경을 넓힌 세계선교를, 2011년부터는 사회문화를 섬기는 문서선교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1980년대 최후탄연기 자욱했던 민주화 운동과 냉전시대 종식 이후 소련(러시아)을 비롯한 동구권 선교 등 사회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던 교회의 세계와 지역 선교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1988년 아직 수교도 이뤄지지 않은 소련 선교사 파송을 꿈꾸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토대로 "후에 모스크바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포한 곳은 압관이다.

책에서는 성경 말씀과 그 해의 이야기에 이어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으로 나눠 각 연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35년간의 사역을 소개한 1-4부에 이어, 5부에서는 세계 각지 선교사들의 각종



대학선교와 세계선교를 향한 권서행전 | 우남식 지식과감성 | 911쪽

선교보고와 기록을 수록했다.

우남식 목사는 "대학마을교회 35년 역사를 돌아보니, 일대일 성경공부,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성의 반복된 역사였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성경 말씀은 힘이 있어 잠든 젊은이들을 일깨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35년사를 기록하며 세 가지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성인 복음역사에 쓰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부족한 나와 함께 복음역사에 동참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매년 수양회를 여덟 번 이상 할 만큼 열심히 했지만 저의 미성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을 잘 품고 섬기지 못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 목사는 추가로 6가지의 아쉬운 점을 고백했다.

먼저 대학생 중심 사역의 특수성만 강조하다 보편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보편성 속에 특수성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유연함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대학생 중심 사역을 하다 보니 전 생애를 주기로 목회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대학생 중심교회 사역의 약점이기도 하다. "각기 발달단계에 맞게 성경 말씀으로 도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담임목사 중심사역에서 발달 단계별 전문 목회자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입체적 목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발달 단계별 목회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인위적 훈련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훈련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로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일본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교회 조직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UBF에 와서 신앙을 가졌기에 교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성례전, 성경공부, 기도와 전도와 교제입니다. 개척 초기에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배와 성례전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신앙생활에 경(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행복지향적 목회보다 성공지향적 목회를 했다고 한다. "일대일 팀 수와 주일예배와 선교사 파송 숫자, 교회를 짓는 외형적인 것이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제자들을 한 카테고리(선교단체)에 묶어두고 자 하는 편협한 마음이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넓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학복음 사역을 하는 미래 지도자들은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만열 박사(전 국사편찬위원장)는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교들이 땅에 전파한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교회 성장이 이뤄졌고, 또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 사역하고 있지만 그 기록들을 제대로 수집·보관하지 못했고 그들의 자료를 완벽하게 모아놓은 곳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목사님 내외분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 감당한 선교사역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남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나라를 거쳐간 많은 선교사들의 자료를 완벽하게 모아놓은 곳이 없다. '선교사 연구소'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며 "대형교회가 많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권서행전적'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우남식 목사는 "3년 동안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몇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키우게 하셨다"며 "이 역사가 35년이 흘러오는데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이대용 기자

# 한양훈 목사 영성 시리즈 ‘당신들을 기억하며’

## 주님 바라보며 열정 가지고 교회 섬기는 모습 뿌듯



당신들을 기억하며 한양훈 | 有하 | 210쪽

레기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생각만 한다면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남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우리 가슴에 쓰레기를 잔뜩 담아두는 행동일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한계'를 고백한 글도 있다. "이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내 귀로 들리지 않으나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실존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하며,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작년 무더위 때 쓴 '갈증'이라는 글도 있다. "사실 갈증은 생명체의 본능이고 그것이 정상이며,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영적 갈증이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먹는 것에 대한 갈증, 놀이에 대한 갈증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갈증은 폭증한 듯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행을 하십시오."

수능 시험 이후에는 '영적 세계를 알자'는 글을 썼다.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여 세상을 좋아하게 하며, 죄를 짓게 하여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한 사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책들을 통해 사탄의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포함한 칼럼집들은 <성경적 영성>, <하늘과 땅에 살다>와 함께 '한양훈 영성 시리즈'이다. 한양훈 목사는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 <요한계시록 강해> 등 강해 시리즈, <영의 눈이 열리다>, <영적 천재들의 이야기> 등 간증 시리즈, <내 양을 치유하라>, <벼랑 끝에서> 등 치유 시리즈를 펴냈다.

이대용 기자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모 집 과 정

#### ◆학사 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 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박사 과정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봄학기 개강 3월 31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봄학기개강  
3월 31일**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 “BTS 다녀간 뒤 한류 더 뜨거운 체코... 선교에도 활용” MK · PK 위한 여름 캠프 준비중인 체코 각용화 선교사

MK들이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날개를 달아 주고자 문화선교사의 꿈 꾸며 유럽에서 교회 개척해 체코, 마르틴 루터보다 앞선 안 후스의 후예들

유럽 한복판 체코에서 목회자·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문화 캠프 (Cultural Camp) ‘꿈을 그리는 축제’(Dream Sketch Festival)가 오는 7월 진행된다. 이를 준비하는 각용화 선교사(프라하 생명나문교회)는 체코에서 한류(韓流)와 문화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각용화 선교사로부터 선교와 문화 캠프 이야기를 들었다.

“MK 컬처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강사는 문화예술가들을 세우고, 목회자 자녀(PK)들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프라하에서 3박 4일간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 각자 배우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누리게 하고, 중간에 상담을 통해 속마음을 털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프라하까지만 오면 나머지는 전액 무료로 섬길 것입니다.

### 체코에서도 한류가 뜨겁습니까?

“케이팝(K-POP)과 드라마가 함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방탄소년단(BTS)이 가까운 독일에서 공연한 뒤 팬들이 더 늘었습니다. 이곳 한류 팬들만 3천여 명입니다. 체코인들로 이루어진 ‘체코한류웨이브(CZHW)’가 한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케이팝 콘테스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대회에 900여 명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케이팝을 활용한 선교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댄스 클래스부터 시작했습니다.”

### 지원자가 많았나요.

“무료가 아닌데도 40명 넘게 지원했는데, 공간 부족 때문에 30명만 접수받았습니다. 3일간 클래스 후 마지막 40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윈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한 문화 때문에 유럽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뛰쳐나가는데, 댄스 선생님이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니 집중하면서 듣더군요. 우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사실 자신이 신앙인이었다고 밝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마음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문화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은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저희가 그 벽을 깨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관심이 있는 매개체를 가져 가면 수용합니다.”

### 선교사·목회자 자녀 캠프도 함께 연다고 들었습니다.

“체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와 함께,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MK) 속에 아픔과 고통이 많고,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월부터 먼저 돌보고 싶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들어주면서, 그 속에 있는 달란트를 고집어내 주고자 합니다. 저녁에는 박태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 것입니다.”

### 강사진이 화려하던데요.

“부산에서 신경정신과 원장님이 오시기로 했고, 현재까지 기타리스트 함준호 교수님, 우크라이나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한재성 선교사님, 그리고 십자가 도제가 윤석경 권사님은 조그마한 십자가 100개를 만들어 오기로 하셨습니다. 유하나 뮤지컬 감독님과 김상준 목사님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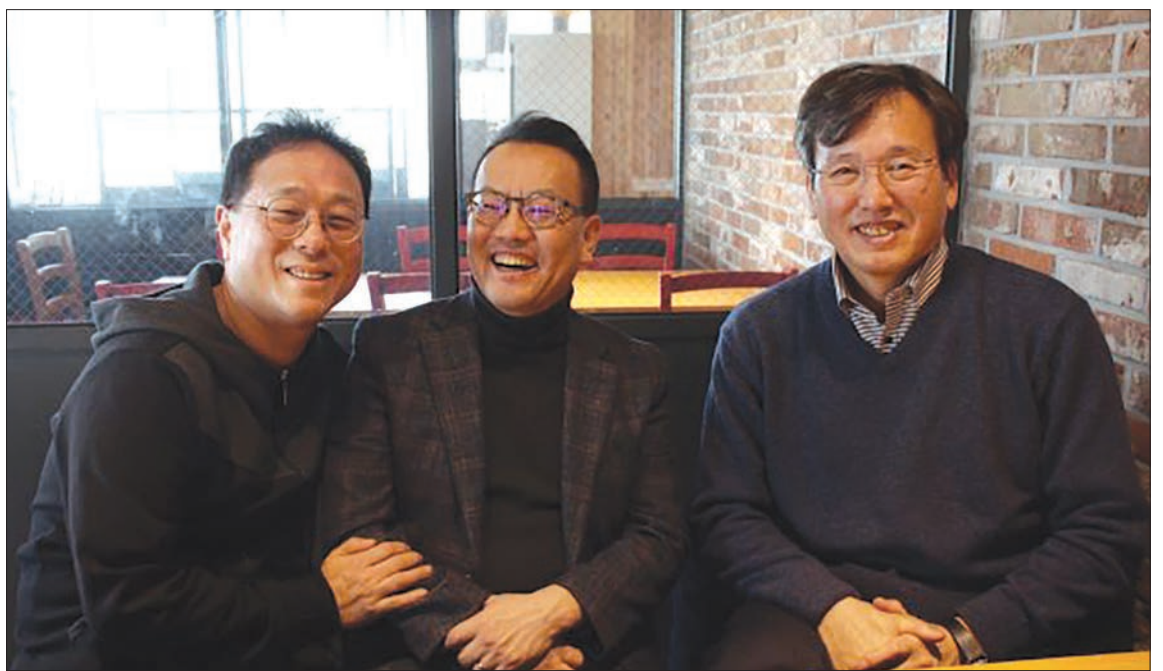
또 파리삼일교회 사모님이 종이 공예가이자 화가이신데, 캠프에서 학생들과 종이로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애국가 1절만 아는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합니다. 문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안식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캠프에 오면 밤에 잠을 잘 안 자는데, 그럴 때 강사 분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요. 학생들보다 강사진이 많은 캠프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수련회가 있고, MK수련회도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문화를 중심으로 열리는 캠프는 불가리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MK들이 가진 문화적인 달란트를 발견하고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문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 선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1989년부터 40여개국을 다니며



오는 7월 캠프에서 말씀을 전할 박태남 목사(가운데), 코디네이터로 돕고 있는 김상준 목사(왼쪽)와 함께한 각용화 선교사.

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슬람권인 중동에 갔는데, 불교식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곳 불교인들이 모임 장소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문화’라서 이슬람권에서도 활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원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해 목회하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1년간 유럽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뜯어 봤습니다. 유럽은 문화에 있어 활짝 열린 곳입니다. 작은 그림 하나 보려고 3시간씩 운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우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그들 안의 우월성과 고급 문화 추구 때문에 가능할까 염려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약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공산주의 지배를 오래 받아 보니, 대중문화는 우리나라의 90년대 수준입니다. 이를 뚫어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케이팝을 위시한 한류입니다. 체코 청소년들은 대부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케이팝과 드라마를 접하고 한류팬이 됐습니다.

BTS가 작년 10월에 왔다 가면서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MK 캠프를 여는 것도 언어가 되는 이들을 회복시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MK들이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문화로 접촉점을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프라하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셨죠.

“유럽 지역에서는 아직 문화 선교가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단계적으로 ‘라이프트리 아트 컬처 앤 릴리

전’ 문화법인을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아내의 가정 사역을 통해 전도된 분들 함께 주일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공동체가 되었고, 계속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문화선교사로서의 꿈을 30년만에 이루기 위해 유럽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문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전을 함께 하는 성도들 90여명과 함께 문화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문화 선교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지난 2월 한 달간 이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십니다. 선교와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예산이 3만 유로(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사들은 자비량으로 오시고, 여행업을 오래 하신 교회 장로님께서 교통편과 숙소는 저렴한 곳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기에, 하나님께서 올해 캠프를 하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한류 팬들은 지금 한국에서 5인조 무명 댄스팀이 와도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옵니다.

체코 청소년들 가운데 한국을 한번도 와 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류주간’이 되면 한복 입기 체험부터 한국인 화장법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본인들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올 때 3명이라도 데려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교를 떠나, 한국에 오는 것이 꿈인 아이들입니다. 체코에는 지금 ‘한류 웨이브’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쳐지고 있어,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 많은 유럽 국가들 중 체코를 선교지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원래는 독일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체코로 보내셨습니다. 체코에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오길 너무 잘 했습니다. 국제공용이 있고, 유럽의 한가운데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 높습니다. 400년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마르틴 루터보다 앞섰던 종교개혁자 안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나치 독일로부터 7년, 공산당으로부터 40여년간 지배를 받아 보니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가장 낮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 비전이 있으시다면.

“지금 섬기는 교회가 문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재복음화를 위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문화를 통한 선교입니다. 케이팝뿐 아니라 유럽이 가진 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 정신과 말씀이 살아있었던 문화적 저변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예술가들과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터를 닦고 길을 놓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에 MK와 PK를 섬기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바톤 터치’가 비전입니다.” 이대웅 기자

##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진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신학교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임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 주고 싶어요”

## 헤이파파뮤직(Heypapamusic) 대표 Ethen Lee 인터뷰



헤이파파뮤직 Ethen Lee 대표. 믿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며 '도시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평범한 크리스천의 특별한 꿈

올해에 시작한 아침 기도와 큐티, 한번도 어긴 적 없어 새로운 전도방식에 '나도 교회 와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이들도

“못 듣는 사람 없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 주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 MI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음향 장비 및 악기 회사 '헤이파파뮤직'(Heypapamusic)을 설립한 에단 이 대표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킹덤드림 콘서트에 스템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New Church(최순환 목사)에서 음향 디렉터, 사운드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다. 아직 앳된 외모의 그는 과장이나 꾸밈 없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관해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못 듣는 사람 없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 주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 MI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음향 장비 및 악기 회사 '헤이파파뮤직'(Heypapamusic)을 설립한 에단 이 대표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킹덤드림 콘서트에 스템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New Church(최순환 목사)에서 음향 디렉터, 사운드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다. 아직 앳된 외모의 그는 과장이나 꾸밈 없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관해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못 듣는 사람 없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 주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 MI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음향 장비 및 악기 회사 '헤이파파뮤직'(Heypapamusic)을 설립한 에단 이 대표를 기독교일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킹덤드림 콘서트에 스템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New Church(최순환 목사)에서 음향 디렉터, 사운드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다. 아직 앳된 외모의 그는 과장이나 꾸밈 없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에 관해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한달에 한번씩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멤버들과 전도용품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반감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요’하며 거절하며 가버리죠.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는 것을 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커피, 과자, 양초 등도 생각했죠. 그러다가 담배 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가 ‘라이터는 정말 안 버립니다.’라고 했고 그러자 ‘그래? 그러면 레이플을 붙여서 전도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거죠. 밤에 나가서 술집 앞에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라이터가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전도 나왔다고 설명하면 잘 들어줬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중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 해도 되요?’라고 반문하죠. 반면에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오히려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왜 여기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나누면 전달이 잘 됐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다, 신기하다, 나도 교회 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음향 디렉터, 사운드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미국에 나온 찬양들을 번안해서 한국에 올리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음향도 하고 디렉터도 하고 있습니다.”

New Church는 커버 찬양, 미국 찬양 번안곡 등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가 킹덤드림 집회를 위해 제작한 ‘나는 평범한 크리스천이다’는 동영상은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에단 리는 촬영을 제외한 이 동영상 제작의 대부분의 부분, 대본과 콘티, 섭외를 모두 담당했다. 이 동영상에는 교회에 다니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찬양팀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짜릿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SNS에 올라온 소식들을 기웃거리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 준다.

그는 미디어 선교를 전도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은 일단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소통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은, 작품성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저희 영상 밑에 대형교회에 다니는 분이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런 선한 경쟁을 통해 크리스천 영상 문화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게 하는 작용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그의 선교의 비전은 ‘도시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 하나 늘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본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다.

New Church는 성전을 여러차례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로 그는 비전에 대한 확신을 꼽았다.

“매주 새로운 방문자들이 있었는데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지금 멤버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 이전 때문에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었지만 비전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라고 말했다.

New Church는 설교를 한국어로 하는 특성상, 주로 1.5세대이나 한국말을 하는 2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대만과 일본 청년들이 오기도 했고, 멤버들이 그들에게 동시통역을 해줬다.

그에게 사업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그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 그가 음향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 헤이파파뮤직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도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배어 있었다.

“음향이라는 것 자체가, 저라는

사운드 엔지니어 자체가 전달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어(amplifier) 시스템도 하나님을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헤이 파파’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르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매일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습관을 통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제가 시작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딘가가 익숙하지 않아요.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에도 있지만 큐티가 정말 신기한 게, 모든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살고 그 안에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청년들과 십대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멀어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정신 없고 더러운 게 문제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인터뷰를 마칠 때쯤, 최근 목상한 말씀에서 발견한 소망을 나눴다. “여호수아를 계속 읽고 있어요.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법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데 못 듣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호수아처럼 못 듣는 사람이 없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디 한 기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b>저렴한 회비</b>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small>(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small>	<b>낮은 본인부담금</b>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b>다양한 의료비 지원</b>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b>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b> 매년 \$500 건강 검진비	<b>의료비 지원금</b> 질병당 \$150,000	<b>Burden Sharing</b>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mailto: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